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특성 비교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이 미 영

(立教대학 대학원)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비빈곤집단간 특성을 비교하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 건강정도, 직력 유무, 요보호가족원수, 자활가능성변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첫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교통비 지급, 건강상태에 맞는 개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력 유무는 빈곤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직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보호가족원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취업)과 양육/개호가 양립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활사업, 비빈곤, 빈곤, 지역자활센터, 성별 비교

1.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동법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도 본격화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물론, 시범사업을 포함하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자활사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부터 시작하여, 자활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연구들

중, 유태균·김경휘(2003), 권승(2005), 임세희(2006), 박정호(2010) 등은 자활사업의 성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자활사업도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된다면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자활사업은 여성수급자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박경숙, 2001), 여성에 대한 이해와 여성을 고려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자활지원사업의 결과가 여성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강남식·백선희, 2001). 즉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성별 분석이 필요하다.¹⁾ 성별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맞는 자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접근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은 '빈곤의 여성화' 개념에서 출발한다. Pearce(1978)는 미국에서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이 급속하게 여성의 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성별 접근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그 후, Peterson(1987)도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가구 가운데, 남성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가구(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빈곤의 여성화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1996~2002)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1996, 2000)를 이용하여 여성 빈곤의 실태 및 동향을 분석한 석재은(2005)은,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성별 접근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홍백의·김혜연(2007)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빈곤층에 속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성별 비율과 자활사업의 성별 참여비율을 보아도 알 수 있다²⁾.

지금까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는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유태균(2003, 2004), 유태균·김경휘(2003, 2006, 2008), 박정호(2010)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한정되거나,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거나 한 수급형태에 한정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었다³⁾. 즉 ① 자활사업 참여자 중 여성이 비율이 높다는 점, ② 많은 선행연구들이 빈곤위험

1) 이러한 성별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활사업만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성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성별 분석을 하고 있다(석재은, 2004; 심상용, 2006; 김은하, 2009; 유태균·박효진, 2009). 이 중, 석재은(2004)은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심상용(2006)은 여성 근로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성 인지적 여성빈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실증분석을 통하여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규명한 김은하(2009)와 유태균·박효진(2009)은 빈곤여성에게는 남성과 차별화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도 여성 수급자의 비율은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이다.

3) 구체적인 내용은 2장을 참조할 것.

및 양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한 점, ③ 지역조사에 한정된 선행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사업 참여형태와 수급형태에 따라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파악함과 동시에 성별에 따른 특성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 빈곤집단 및 비빈곤 집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추측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자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남식 외(2002)는 전국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조건부수급자 324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특성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의욕 고취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활지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조사결과, 여성수급자들은 고연령, 저학력, 낮은 유배우자율,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과중한 보호 및 수발부담, 열악한 주거실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자활센터는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 프로그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되는 자활과정(초기상담 및 교육, 사업단 배치, 사업단 배치시 의견반영, 사업단 운영방식,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은 자활의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기관의 유형에 따른 수급자들의 자활의욕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초기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자활사업에서 조건부 수급자의 의견 반영 정도, 실무자의 태도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사업단과 수급자 간의 능력/적성의 조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방식, 직원과의 관계, 사업단 선택시 수급자의 의견반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여성조건부수급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자활프로그램 및 과정의 개발과 이를 반영한 정책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관련된 비교적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조사를 시도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연구의 목적상 조사대상을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조건부수급자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성별 분석을 통해 남녀별 차이점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태균(2003, 2004), 유태균·김경휘(2003, 2006, 2008)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4)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방법을 참조할 것.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유태균(2003)은 자활사업 참여가구 가운데 근로가구와 비근로 가구의 특성을 비교·고찰함과 동시에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를 구분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⁵⁾ 2004년에는 수급자가구가 가질 수 있는 일련의 비선택적 특성, 즉 가구 내에 학령기 이전의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또는 노인의 존재가 수급자가구의 가구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⁶⁾ 유태균·김경휘(2003)는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⁷⁾. 또 2006과 2008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⁸⁾. 이렇게 200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졌고, 동태적인 연구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자활사업에 많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서울 및 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이 아니라-자활사업 참여가구(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며, 성별 분석을 행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정호(2010)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며,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자활성과와 관련하여 연구함으로써 주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제공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학력, 자활사업유형, 지역, 소득, 연령, 보호아동유무, 성별 변인이 정서적 자활성과와 경제적 자활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자활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패널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성별이 자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만을 알아보았다⁹⁾. 일정지역에 한정된 연구가

- 5)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 간에 다양한 특성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위한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6) 분석 결과, 만성질환자 가구원과 장애인 가구원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선을 초과하는 초과분 가구생계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여, 현행 생계비 산정 방식을 수급자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구별 특성에 따른 생계급여 차등화를 피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7) 조사결과,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의 특성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유무, 사적 이전소득 유무,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정도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고위험집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가족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요보호 가구원을 가진 가구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8) 자활사업 중도이탈 가능성에는 경제적 요인들보다는 참여자의 성별, 건강상태, 가구내 만성질환자의 비율, 가구내 중·고등학교 자녀의 비율, 삶의 만족도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자활사업 참여자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이탈한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이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성별 분석을 행하지 않은 연구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남녀 차이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조사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특성을 비교·파악하고, 빈곤집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현재 전국 242개소가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60개소의 '지역자활센터'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¹⁰⁾, 선정된 각 지역자활센터에는 설문지를 30부씩, 우편으로 의뢰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질문지 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2010년 6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825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적절치 못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68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참조).

-
- 9) 자활사업 성과·효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박영란·황정업, 2002; 김교성·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권승, 2005; 손능수, 2005a, 2005b; 정원오·김진구, 2005; 백학영·고미선, 2007)에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나타나 있지만,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 본 연구제목에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이라고 표시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분석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자활사업의 참여형태와 기초법의 수급방법에 의한 분류이지, 자활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집단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또 자활사업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성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성별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만을 살펴보았다.
- 10) 60개소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16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 행정구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분포(수)를 조사하였다. 그 분포비율에 비례하여 조사대상인 '지역자활센터'의 수를 선정하였다. 각 행정구역 내에서의 '지역자활센터' 선정은 랜덤으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지역	전국 센터 (개소)	조사실시 센터 (개소)	조사실시 설문지 (부)	회수된 센터 (개소)	회수 설문지(부)	유효설문지 (부)	
강원	15	4	‘지역자활센터 1개소당 30부씩 의뢰	2	53	30	
경기	32	8		4	80	54	
경남	20	5		3	88	83	
경북	20	5		2	59	59	
광주	8	2		0	0	0	
대구	8	2		1	30	30	
대전	4	1		0	0	0	
부산	18	4		2	59	59	
서울	31	8		5	127	90	
울산	5	1		1	29	29	
인천	11	3		2	52	30	
전남	21	5		4	99	93	
전북	18	4		3	79	65	
제주	4	1		0	0	0	
충남	15	4		2	56	51	
충북	12	3		1	14	11	
계(%)	242	60		1800	32(53.3)	825(45.8)	684(38.0)

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급유형과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비빈곤집단(0)과 빈곤집단(1)인 더미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자활특례자와 차상위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는 말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비빈곤자로 정의하였다. 또, 자활공동체사업은 자활프로그램 중, ① 가장 높은 단계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② 지역자활센터의 원조 하에 운영되기는 하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활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¹¹⁾, 본 조사에서는 비빈곤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의 대상자는 빈곤집단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 참조).

11) 자활공동체는 자활지원사업의 최종점이면서 탈출구에 해당한다. 또 자활공동체는 활동범위가 경쟁 시장이며,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제도 내에서는 자활공동체 이상의 단계가 없다(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부설자활정책연구소, 2009).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비빈곤자로 보았다.

*빈 곤: 수급유형이 조건부수급자이거나 일반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유형이 시장진입형이거나 사회적 일자리형
*비빈곤: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자활사업 참여유형이 자활공동체인 자



수급유형 자활사업유형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비빈곤	비빈곤	비빈곤	비빈곤
시장진입형	빈곤	빈곤	비빈곤	비빈곤
사회적일자리형	빈곤	빈곤	비빈곤	비빈곤

[그림 1]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조작적 정의

[그림 1]의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비빈곤집단은 52.9%로 빈곤집단(47.1%)보다 많았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비빈곤집단에는 남성의 비율이, 빈곤집단에는 여성이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표본 수가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문제=빈곤(빈곤의 여성화)”를 의미하며, 여성이 빈곤상태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유태균·김경희(2003), 석재은(2005), 임세희(2006), 박정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2> 빈곤/비빈곤집단의 분포

	단위: 빈도(%)		
	비빈곤	빈 곤	전 체
남 성	82(55.4)	66(44.6)	148(21.6)
여 성	280(52.2)	256(47.8)	536(78.4)
전 체	362(52.9)	322(47.1)	684(100.0)

(2) 독립변수

① 인적자본관련변수

인적자본관련변수는 연령, 학력, 건강상태, 직력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상태는 조사대상자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정도를 나타내는 질문 1문항으로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직력에 관한 문항은 취직경험유무, 직력이 있는 대상자들에 한하여, 직종, 고용형태, 고용기간(개월), 퇴직이유, 총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② 가족관련변수

가족관련변수는 가구유형, 가족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단독가구, 기타로 구분하였다. 가족원에 관해서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수, 일을 하

고 있는 취업가족원수, 보호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가족원수(자녀, 장애인, 노인 등)를 묻는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③ 자활관련변수¹²⁾

자활관련변수는 총 4문항으로, 우선,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총소득이 증가하였는가, 그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 소득초과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로부터 탈락될까 걱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④ 의식과 태도관련변수

의식과 태도 관련변수에는 '기술교육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자격증이 자활하는데 필요하다',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다'는 문항과 만족도관련변수¹³⁾로 구성하였다. 모든 질문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격증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활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자활사업참여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빈곤집단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 실태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148명(21.6%), 여성이 536명(78.4%)으로 여성이 많았다¹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13.6%), 서울(13.2%), 경남(12.1%) 순으로 많

12) 자활관련변수는 직업능력관련변수와 경제관련 변수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직업능력관련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경제관련 변수만 고찰하기로 한다.

13) 만족도관련변수는 손능수(2005b)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총 1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경제적 측면에 관한 문항(3), 노동(자활사업)에 관한 문항(3), 센터 이용에 관한 문항(4), 대인관계에 관한 문항(2),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문항(3)이다.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실태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3%, 여성이 57%로 여성이 많다(보건복지부, 2010).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은 인적자본의 불충분, 가사 및 육아부담, 노동시장에의 차별 등으로 노동시장의 참여가능성이 낮아 취직을 한다고 하여도 불안정고용의 저임금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급자 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있고, 충북(1.6%)이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는, 서울(17.6%), 경남(12.8%), 경기(9.5%), 전북(9.5%)이 많고, 충북(3.4%)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와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49.7%가 조건부수급자였고, 차상위계층 32.0%, 일반수급 12.6%, 자활특례자 5.7%이었다. 남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유형은 사회적 일자리형이 44.7%로 가장 많았고, 시장진입형 31.3%, 자활공동체 24.0%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자활사업의 유형은 자활공동체가 31.4%로 가장 많았다. 자활공동체는 자활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레벨에 속한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자립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남성은 38.5%, 여성은 29.5%로 남성의 경우가 높았다. 즉 남성의 경우가 자활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한 부모가구(모자가구)의 비율이 높아,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하여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활사업 참여실태

		단위: 빈도(%)		
항 목	구 분	전체(684)	남성(148)	여성(536)
지 역	강원	30(4.4)	7(4.7)	23(4.3)
	경기	54(7.9)	14(9.5)	40(7.5)
	경남	83(12.1)	19(12.8)	64(11.9)
	경북	59(8.6)	9(6.1)	50(9.3)
	대구	30(4.4)	8(5.4)	22(4.1)
	부산	59(8.6)	12(8.1)	47(8.8)
	서울	90(13.2)	26(17.6)	64(11.9)
	울산	29(4.2)	9(6.1)	20(3.7)
	인천	30(4.4)	7(4.7)	23(4.3)
	전남	93(13.6)	10(6.8)	83(15.5)
	전북	65(9.5)	14(9.5)	51(9.5)
	충남	51(7.5)	8(5.4)	43(8.0)
	충북	11(1.6)	5(3.4)	6(1.1)
수급 유형	조건부수급자	340(49.7)	75(50.7)	265(49.4)
	일반수급자	86(12.6)	16(10.8)	70(13.1)
	자활특례자	39(5.7)	13(8.8)	26(4.9)
	차상위계층	219(32.0)	44(29.7)	175(32.6)
자활사업 유형 (현재)	자활공동체	164(24.0)	36(24.3)	128(23.9)
	시장진입형	214(31.3)	52(35.1)	162(30.2)
	사회적 일자리형	306(44.7)	60(40.5)	246(45.9)
희망하는 자활사업 유형	자활공동체	215(31.4)	57(38.5)	158(29.5)
	시장진입형	200(29.2)	46(31.1)	154(28.7)
	사회적 일자리형	144(21.1)	23(15.5)	121(22.6)
	근로유지형	27(3.9)	6(4.1)	21(3.9)
	노동부의 직업훈련	58(8.5)	7(4.7)	51(9.5)

항 목	구 분	전체(684)	남성(148)	여성(536)
	기 타 ¹⁾	40(5.8)	9(6.1)	31(5.8)
자활사업 업종 (현재)	주거복지사업	44(6.4)	26(17.6)	18(3.4)
	청소 및 세탁사업	132(19.3)	28(18.9)	104(19.4)
	재활용사업	77(11.3)	41(27.7)	36(6.7)
	영농사업	38(5.6)	12(8.1)	26(4.9)
	외식사업	93(13.6)	8(5.4)	85(15.9)
	봉제사업	34(5.0)	4(2.7)	30(5.6)
	사회서비스 사업	258(37.7)	25(16.9)	233(43.5)
	지역환경정비	3(0.4)	2(1.4)	1(0.2)
	기 타	5(0.7)	2(1.4)	3(0.6)
희망하는 자활사업 업종	주거복지사업	38(5.6)	21(14.2)	17(3.2)
	청소 및 세탁사업	89(13.0)	17(11.5)	72(13.4)
	재활용사업	53(7.7)	33(22.3)	20(3.7)
	영농사업	37(5.4)	11(7.4)	26(4.9)
	외식사업	122(17.8)	18(12.2)	104(19.4)
	봉제사업	70(10.2)	3(2.0)	67(12.5)
	사회서비스 사업	194(28.4)	17(11.5)	177(33.0)
	지역환경정비	25(3.7)	11(7.4)	14(2.6)
	기 타 ¹⁾	56(8.2)	17(11.5)	39(7.3)

주 : 1) 기타는 '창업하여 자활하고 싶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등이 있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업종을 보면,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사회서비스사업이 37.7%로 가장 많았고, 청소 및 세탁사업 19.3%, 외식사업 13.6%, 재활용사업 11.3%순으로 많은 반면, 지역환경정비가 0.4%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재활용사업 27.7%, 청소 및 세탁사업 18.9%, 주거복지사업 17.6%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사회서비스사업 43.5%, 청소 및 세탁사업 19.4%, 외식사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활사업의 업종이 남녀별로 성별분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4. 분석결과

1)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특성 비교

(1) 인적자본관련변수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인적자본관련변수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 <표 4>와 <표 5>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조사대상자는 연령만이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조사대상자는 연령, 건강, 학력이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에서는 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에 비

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조사대상자에서는 학력이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빈곤집단의 연령이 47.12세로 비빈곤집단의 연령(51.99세)에 비해 약 5년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조사대상자는 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고 학력은 높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인적자본변수 특성 비교 I

		비빈곤(362)		빈곤(322)	t 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 (세)	전체(684)	49.36(8.72)		46.14(7.44)	5.220***
	남성(148)	51.99(8.50)		47.12(7.68)	3.613***
	여성(536)	48.60(8.65)		45.89(7.37)	3.915***
건강정도	전체(684)	3.01(0.80)		2.94(0.78)	1.163
	남성(148)	2.98(0.80)		3.15(0.81)	-1.323
	여성(536)	3.02(0.80)		2.88(0.77)	1.994*

***p<.001 *p<.05

〈표 5〉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인적자본변수 특성 비교 II

				비빈곤(362)		빈곤(322)		단위: 빈도(%)
								χ^2
학력	전체 (684)	초졸이하		69(19.1)		38(11.8)		14.640**
		중졸		95(26.2)		64(19.9)		
		고졸		165(45.6)		190(59.0)		
		대졸이상		33(9.1)		30(9.3)		
	남성 (148)	초졸이하		11(13.4)		7(10.6)		1.178
		중졸		22(26.8)		15(22.7)		
		고졸		35(42.7)		34(51.5)		
		대졸이상		14(17.1)		10(15.2)		
여성 (536)	초졸이하		58(20.7)		31(12.1)		14.256**	
	중졸		73(26.1)		49(19.1)			
	고졸		130(46.4)		156(60.9)			
	대졸이상		19(6.8)		20(7.8)			
취업 경험 유무 ¹⁾	전체 (684)	없음		113(31.2)		117(36.3)		2.002
		있음		249(68.8)		205(63.7)		
	남성 (148)	없음		27(32.9)		22(33.3)		0.003
		있음		55(67.1)		44(66.7)		
여성 (536)	없음		86(30.7)		95(37.1)		2.445	
	있음		194(69.3)		161(62.9)			

주 : 1) 직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형태, 직종, 고용기간, 퇴직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였음.

**p<.01

(2) 가족관련변수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가족관련변수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 <표 6>과 <표 7>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가구유형, 가족원수, 취업가족원수, 요보호가족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조사대상자는 요보호가족원수만이, 여성 조사대상자는 가구유형, 취업가족원수, 요보호가족원수가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비빈곤집단은 일반가구 43.6%, 한부모가구 24.9%, 단독가구 22.1%로 나타난 반면, 빈곤집단은 한부모가구 45.0%, 일반가구 35.4%, 단독가구 11.5%로 나타나, 비빈곤집단에서는 일반가구가, 빈곤집단에서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 중 빈곤집단의 가족원수는 2.25명, 비빈곤집단의 가족원수는 1.97명으로 빈곤집단의 가구원수가 비빈곤집단의 가족원수보다 많으며, 취업가족원수는 빈곤집단에 비해 비빈곤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요보호가족원수는 비빈곤집단에서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조사대상자에서는 비빈곤집단에 비해 빈곤집단의 요보호가족원수가 많고, 여성 조사대상자에서는 가족원수를 제외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가구유형의 특성 비교

		비빈곤(362)	빈곤(322)	단위: 빈도(%) χ^2
전체 (684)	일반가구	158(43.6)	114(35.4)	35.809***
	부부가구	23(6.4)	14(4.3)	
	한부모가구	90(24.9)	145(45.0)	
	단독가구	80(22.1)	37(11.5)	
	기타	11(3.0)	12(3.7)	
남성 (148)	일반가구	36(43.9)	30(45.5)	3.565
	부부가구	5(6.1)	2(3.0)	
	한부모가구	13(15.9)	17(25.8)	
	단독가구	23(28.0)	13(19.7)	
	기타	5(6.1)	4(6.1)	
여성 (536)	일반가구	122(43.6)	84(32.8)	33.620***
	부부가구	18(6.4)	12(4.7)	
	한부모가구	77(27.5)	128(50.0)	
	단독가구	57(20.4)	24(9.4)	
	기타	6(2.1)	8(3.1)	

***p<.001

〈표 7〉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가족원관련변수의 특성 비교

		비빈곤		t 값
		평균(표준편차)	빈곤 평균(표준편차)	
가족원수 ^{주)} (명)	전체(684)	1.97(1.47)	2.25(1.37)	-2.562*
	남성(148)	1.77(1.54)	2.23(1.56)	-1.792
	여성(536)	2.03(1.44)	2.26(1.32)	-1.883
취업 가족원수 ^{주)} (명)	전체(684)	0.45(0.66)	0.24(0.52)	4.703***
	남성(148)	0.34(0.61)	0.18(0.46)	1.807
	여성(536)	0.48(0.67)	0.25(0.53)	4.408***
요보호 가족원수 ^{주)} (명)	전체(684)	1.17(1.17)	1.65(1.24)	-5.278***
	남성(148)	1.09(1.25)	1.56(1.34)	-2.229*
	여성(536)	1.19(1.14)	1.68(1.22)	-4.769***

주) 본인을 제외한 수치임.

*p<.05 ***p<.001

(3) 자활관련변수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소득증가정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조사대상자 중에서 비빈곤집단은 60만원 이상 43.1%, 20만원 미만 29.0%이었다. 빈곤집단은 20만원 미만 39.1%, 60만원 이상 33.2%이었다. 비빈곤집단은 60만원 이상, 빈곤집단은 2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비빈곤집단과 빈곤집단 간에 유의하지 않으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나,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와 유사한 형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소득증가정도 특성 비교

		비빈곤(362)		빈곤(322)		단위: 빈도(%) χ^2
전체 (684)	20만원 미만	105(29.0)	126(39.1)	10.101*		
	20~40만원 미만	32(8.8)	33(10.2)			
	40~60만원 미만	69(19.1)	56(17.4)			
	60만원 이상	156(43.1)	107(33.2)			
남성 (148)	20만원 미만	21(25.6)	22(33.3)	1.745		
	20~40만원 미만	10(12.2)	10(15.2)			
	40~60만원 미만	20(24.4)	14(21.2)			
여성 (536)	60만원 이상	31(37.8)	20(30.3)	8.442*		
	20만원 미만	84(30.0)	104(40.6)			
	20~40만원 미만	22(7.9)	23(9.0)			
	40~60만원 미만	49(17.5)	42(16.4)			
	60만원 이상	125(44.6)	87(34.0)			

*p<.05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소득만족도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 것이 <표 9>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비빈곤집단과 빈곤집단은 소득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남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도 소득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비빈곤집단(2.49)이 빈곤집단(2.33)보다 소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소득만족도의 특성 비교

		비빈곤(362)	빈곤(322)	t 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소득만족도	전체(684)	2.44(0.87)	2.34(0.87)	1.507
	남성(148)	2.29(0.82)	2.41(0.82)	-0.855
	여성(536)	2.49(0.88)	2.33(0.88)	2.126*

*p<.05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수급탈락에 대한 걱정 유무, 그 이유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비빈곤집단은 '걱정이다'가 53%, 빈곤집단은 69.3%로 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보다 수급탈락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걱정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생계문제와 교육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와 여성 조사대상자에서는 빈곤집단(39.5%, 43.5%)이 비빈곤집단(25.5%, 27.7%)에 비해 교육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빈곤집단 중에서도 여성 조사대상자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표 10>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수급탈락에 대한 걱정의 특성 비교

		비빈곤(362)	빈곤(322)	단위: 빈도(%) χ^2
전체 (684)	걱정되지 않는다	170(47.0)	99(30.7)	18.780***
	걱정이다	192(53.0)	223(69.3)	
남성 (148)	걱정되지 않는다	56(68.3)	29(43.9)	8.871**
	걱정이다	26(31.7)	37(56.1)	
여성 (536)	걱정되지 않는다	114(40.7)	70(27.3)	10.605***
	걱정이다	166(59.3)	186(72.7)	

p<.01 *p<.001

〈표 11〉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걱정 이유의 특성 비교

		비빈곤(362)	빈곤(322)	단위: 빈도(%) χ^2
전체 (415)	생계문제	109(56.8)	109(48.9)	10.516*
	교육문제	49(25.5)	88(39.5)	
	의료급여문제	31(16.1)	22(9.9)	
	기타	3(1.6)	4(1.8)	
남성 (63)	생계문제	17(65.4)	25(67.6)	2.685
	교육문제	3(11.5)	7(18.9)	
	의료급여문제	6(23.1)	4(10.8)	
	기타	0(0.0)	1(2.7)	
여성 (352)	생계문제	92(55.4)	84(45.2)	10.045*
	교육문제	46(27.7)	81(43.5)	
	의료급여문제	25(15.1)	18(9.7)	
	기타	3(1.8)	3(1.6)	

*p<.05

(4) 의식과 태도관련변수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의식과 태도관련변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와 남성 조사대상자에서는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의식과 태도관련변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자활가능성과 만족도가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가능성에 있어서, 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에 비해 자립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간 의식과 태도관련변수의 특성 비교

		비빈곤(362) 평균(표준편차)	빈곤(322) 평균(표준편차)	t 값
교육과 자활사업 의 필요성	전체(684)	3.41(0.98)	3.49(1.04)	-0.986
	남성(148)	3.32(0.94)	3.32(1.17)	-0.006
	여성(536)	3.44(0.99)	3.53(1.00)	-1.071
자활가능성 ¹⁾	전체(684)	3.23(0.95)	3.34(1.01)	-1.424
	남성(148)	3.41(0.96)	3.18(1.08)	1.390
	여성(536)	3.18(0.95)	3.38(0.99)	-2.403*
만족도	전체(684)	3.27(.540)	3.20(.500)	-1.817
	남성(148)	3.19(.556)	3.21(.559)	.251
	여성(536)	3.30(.533)	3.20(.485)	-2.272*

주 : 1) 자활가능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p<.05

2)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에서의 영향요인 분석

성별에 따른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파악한데 이어서, 빈곤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⁵⁾ <표 13>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빈곤집단/비빈곤집단인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서 분석모형으로서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2=94.812$, $p<.001$). 조사대상자를 남녀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2=36.025$, $p<.001$; $x^2=76.840$, $p<.001$).

<표 13> 성별에 따른 빈곤에의 영향요인(빈곤=1)

변 수	전 체(684)		남 성(148)		여 성(536)		
	B	Exp(B)	B	Exp(B)	B	Exp(B)	
인적자 본관련 변수	연 령	-.039***	.962	-.077**	.926	-.033*	.967
	학 령	.042	1.043	-.066	.936	.086	1.089
	건강정도	-.145	.865	.252	1.287	-.262*	.770
	직력 유무(유=1)	-.315	.730	.286	1.331	-.416*	.659
가족관 련변수	가족원수	.082	1.086	.417	1.518	-.011	.989
	취업가족원수	-.742***	.476	-1.092*	.335	-.647**	.524
	요보호가족원수	.167	1.182	-.204	.815	.260*	1.297
자활관 련변수	소득증가정도	-.132*	.876	-.165	.848	-.097	.907
	증가소득만족도	.076	1.079	.251	1.286	.068	1.070
	수급탈락유무(유=1)	.673***	1.961	1.238**	3.449	.534**	1.705
의식 및 태도관 련변수	교육/자활사업의 필요성 ¹⁾	.093	1.098	-.100	.905	.139	1.149
	자활가능성 전반적 만족도	.145	1.156	-.199	.820	.221*	1.248
상 수		1.521	4.575	3.170	23.810	1.393	4.028
df	13		13		13		
-2LL	851.073		167.413		665.139		
모형적합도(x^2)	94.812***		36.025***		76.840***		

주 : 1) 자활가능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 $p<.05$ ** $p<.01$ *** $p<.001$

15)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투입되는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 범주형 독립변수들에 대해서도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범주형 독립변수들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는 지면 부족으로 인해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 인적자본관련변수

연령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남성 조사대상자, 여성 조사대상자 모두에서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가 빈곤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962배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많지만(홍경준, 2004; 정원오·김진구, 2005; 심상용, 2006; 유태균·김경희, 2008; 유태균·박효진, 2009; 박정호, 2010), 본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초보장수급 대상 가운데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빈곤계층의 분석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자활사업 중도이탈자나 수급탈피자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져,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재)취업이나 자활공동체 등 자활의 기회가 많아져 비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고연령일수록 자아존중감, 자신의 신뢰감 회복 등 정서적 자활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이상록(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 빈곤과 연령의 부적인 관계에서 젊은층의 빈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중 68.6%가 근로능력이 있는 비노인가구(구인회, 2002)로 이는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의 경우도 빈곤율과 빈곤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의 한국경제의 특징 중 하나의 투자부진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부진과 청년실업률의 증가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조용수·김기승,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젊은층이 빈곤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자활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기능을 가르친다거나, 실제 기업에서의 현장실습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청년실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신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기업도 경력자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초임자를 고용하여 인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건강의 경우, 여성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만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이 좋을수록 빈곤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770배 낮아진다. 이는 건강할수록 자활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이상록(2003), 김교성·강철희(2003), 권승(2005), 정원오·김진구(2005), 유태균·김경희(2008), 유태균·박효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정도를 남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표 14〉 참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남성은 건강에 의해 영향을 덜 받지만, 여성의 경우는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건강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표 14〉 성별에 따른 건강정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	좋다	매우 좋다	평균
남성(148)	4(2.7)	25(16.9)	85(57.4)	27(18.2)	7(4.7)	3.05
여성(536)	20(3.7)	105(19.6)	304(56.7)	94(17.5)	13(2.4)	2.95
전체(684)	24(3.5)	130(19.0)	389(56.9)	121(17.7)	20(2.9)	3.00

세 번째, 직력의 유무의 경우에도 여성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만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력이 수급권 탈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승(2005)의 연구와, 과거의 취업활동 여부가 자립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원오·김진구(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남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직력이 있다는 사실이 빈곤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직력이 있다는 사실은 빈곤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659배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력의 내용(직종, 고용형태, 고용기간, 퇴직이유)에 있어서 각각 분석을 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취업형태와는 상관없이 직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빈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는 직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한다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직력이 없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체험학습이나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직력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취업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하루 빨리 자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관련변수

취업가족원수는 전체 조사대상자, 남성 조사대상자와 여성 조사대상자 모두에서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한 가족원은 가계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가구원 중 취업가족원수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가족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유태균·김경휘, 2003; 석재은, 2005; 권승, 2005; 김주섭, 2006; 조용수·김기승, 2007; 유태균·박효진, 2009). 취업가족원수의 베타계수를 살펴보면 남성 조사대상자에서는 .335, 여성 조사대상자에서는 .524로 나타나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남성 조사대상자에 비해 취업가족원수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조사대상자가 남성 조사대상자에 비해 비빈곤에 취업가족원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보호가족원수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와 남성 조사대상자에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빈곤에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조사대상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요보호가족원수가 많을수록 빈곤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97배 높아진다. 즉, 요보호가족원의 존재는 여성 조사대상자에게는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남성 조사대상자에게는 이렇다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에서 돌봄 노동의 책임이 특히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어 돌봄 노동으로 인하여 여성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석재은 외, 2003; 김영란, 2006; 유태균·박효진, 2009; 박정호, 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요보호가족원수는 자활하는데 장애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보호가족원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1명은 집에서 돌봄 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활(취업활동)과 양육이나 개호를 양립할 수 있는 양립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경제관련변수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증가 정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 정도가 높을수록 빈곤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876배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 조사대상자와 여성 조사대상자는 소득증가 정도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 중 몇몇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응답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수급탈락에 대한 걱정유무는 전체 조사대상자, 남성 조사대상자, 여성 조사대상자 모두에서 빈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수급탈락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집단에 있을 가능성을 1.961배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수급탈락의 베타계수를 살펴보면, 남성 조사대상자에서는 3.449, 여성 조사대상자는 1.705로 나타나 남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여성 조사대상자에 비해 수급탈락 걱정 유무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60세 이상의 남성 조사대상자가 18.9%(여성 조사대상자 7.5%), 혼자 살고 있는 남성 단독가구가 24.3%(여성 단독가구 15.1%)로 여성 조사대상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4) 의식 및 태도관련변수

의식 및 태도관련변수에서는 교육과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활가능성에 있어서는 여성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빈곤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성별에 따라 자활사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은 여성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

성 조사대상자는 빈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정도가 빈곤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빈곤층에 있어서 의료비의 지출은 생계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비목 중의 하나이므로, 의료비의 지원이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의 건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건강상태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병-특히, 여성 특유의 병-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사후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비와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까지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력의 유무에서 남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직력이 있다는 사실이 빈곤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 취업형태와는 상관없이 직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빈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는 직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한다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직력이 없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체험학습이나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직력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취업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하루 빨리 자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요보호가족원수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와 남성 조사대상자에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빈곤에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조사대상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보호가족원의 존재는 여성 조사대상자에게는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는 자활하는데 장애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보호가족원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보호가족원을 맡길 곳이나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설립되거나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요보호가족원이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부 개정하여 양립지원 내용을 법률로 명시화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물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법률로서 명시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동법의 개정내용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를 전후로 하여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조사에 바탕으로 하였지만, 선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우편조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실제 조사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별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의 분석을 행한 바, 동태적인 변화를 밝힐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강남식·백선희. 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사업 분석과 활성화방안”. 『사회보장연구』, 17(2): 49-78.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 구인화.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한국사회복지학』, 48: 83-112.
- 권승. 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수급권 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179-205.
-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경제적 자활 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김영란.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6.
- 김은하. 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239-268.
- 김주섭. 2006. “빈곤계층 대상 직업훈련의 실태와 성과-자활대상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 25-39.
- 박경숙. 2001. “저소득 모자가정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7-98.
- 박영란·황정임. 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간병 도우미 자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83-114.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석재은·김용하·김태완. 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 석재은. 2005. “여성주의 시각에서 빈곤개념의 재정립”. 『도시와 빈곤』, 72: 5-24.
- 손능수. 2005a. “자활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295-320.
- 손능수. 2005b.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729-759.
- 심삼용. 2006. “여성 ‘근로’ 빈곤 증가의 원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규명”. 『사회복지정책』, 26: 55-85.
- 유태균. 2003.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22: 161-199.
- 유태균. 2004.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가구특성이 가구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0(2): 151-178.
- 유태균·김경희. 2003.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가구의 제반 특성 및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19(1): 105-133.

- 유태균·김경휘. 2006.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39-70.
- 유태균·김경휘. 2008.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4(1): 283-306.
- 유태균·박효진. 2009.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주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간의 빈곤탈피 영향 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29-58.
-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 임세희. 2006.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53-277.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조용수·김기승. 2007.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101-124.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자활정책연구소. 2009. 『2009년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홍백의·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
- Peterson, J. 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21(1): 329-337.

A Study of Comparison of Features of Poor Group and Non-Poor group In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

Lee, Mi-Young
(Rikkyo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features between poor group and non-poor group. And, it is examined whether there are man and woman's differences. The investigation targeted the person who were using 'Regional self-support center'. They were classified into poor and non-poor group depending on the participation pattern of the self-support programs. Using logistic regression technique, I analyzed the effects of a serie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whether or not person is in poor group and then compared the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ealth condition of wome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kelihood of pov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appropriate medical service and improvement of health condition to them. Second, the business career of women wa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Whether the business career is or not, it is necessary to do different support. Third, like what has been known until now, care giving was found to be a heavy burden for woman.

Key words : Self-support, Poor, Non-poor, Sex

[논문 접수일 : 11. 08. 11, 심사일 : 11. 09. 06, 게재 확정일 : 11. 10. 20]